



일본, 쌀 선물거래 재개 후 일시적 거래 중단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시작과 함께 폐쇄했던 쌀 선물거래를 72년 만에 부활하여 도쿄와 오사카 상품 거래소를 통해 8월 8일부터 거래를 시작함.
 - 그러나 도쿄 상품거래소 거래 이틀째인 9일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 쌀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장 초반 2012년 1월물 가격이 60kg당 1만 7,280엔으로 형성된 직후 바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어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됨.
 - 이에 앞서 오사카 상품 거래소에서는 8월 8일 북해도산 코시히카리쌀의 장 초반가격이 11월물 1만 4,320엔, 12월물 1만 4,540엔, 2012년 1월물 1만 9,210엔으로 형성된 직후 곧바로 2012년 1월물 거래가 일시 정지됨.

- 일본은 지난 3월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이후 세슘에 오염된 쇠고기가 일본 전역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농산물 오염이 속속 확인되면서 농산물 공포가 번지고 있음.
 - 이에 따라 쌀 역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, 많은 가정에서는 지난해 생산된 쌀을 비축해 놓고 있는 실정임.

- 일본은 에도시대인 1700년대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물시장을 만들어 쌀을 거래했으나,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준비를 위해 식량 유통 통제를 강화하면서 거래를 중단한 바 있음.
 - 이후 쌀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거래를 재개해 달라는 농가들의 지속적인 요구 속에서 쌀 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간의 시험 거래가 결정됨.
 - 이에 대해 일본 전국농협중앙회는 8월 10일 일본의 주식인 쌀 농산물이 투기적인 거래 이용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우려하면서 행정심판을 비롯한 여러 법적 반대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.

(후지산케이비즈니스 8/10, 마이니치신문 8/10, J-CAST뉴스 8/9)